목숨 걸고 막겠다는 한국당…본회의 ‘숨은 반대표’ 나올수도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랐지만…본회의 통과까진 ‘산넘어 산’

한국당 27일 두번째 장외집회 검토
4월 임시국회 사실상 물 건너가
상임위 물리적 충돌 등 진통 불가피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자유한국당 반발**=당장 제1야당 한국당의 초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을 해왔던 기존 관행을 여야 4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두 번째 장외집회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멈춘다면 당장 오는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이 국회를 뛰쳐 나갈 경우 각종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중반기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의 출발은 앞으로 1년간 펼쳐질 치열한 총선 경쟁의 신호탄 성격도 띠고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4월 임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5월 임시 국회 개최를 위한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물리적 충돌**=패스트 트랙 법안들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와 국회의장 재량 등 적용을 고려해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240~27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 만에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물론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력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물리적 충돌 등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도 거론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대난망인 상황이다.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4당 내부에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대 입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모두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한다.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물론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 모 의원은 “대승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지만 선거제 개편에는 반대한다”며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해도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 바른미래당에서 최소 3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의원총회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추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亞와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

문 대통령 순방 마무리…“카자흐 자원부국, 신북방정책 좋은 파트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순방 소회를 밝혔다. ‘철의 실크로드’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도로로 연결해 물류의 혈맥을 잇겠다는 것으로, 남북한 협력 사업 구상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인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유해 봉환은) 그분들이 헌신한 조국의 도리”라며 “봉환을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 유족들과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상의 예우와 환대를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정상회담 전날 제 숙소를 찾아와 친교의 저녁을 보내고, 비즈니스 포럼에 직접 참석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찬에도 함께 했다”고 떠올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 님께서 영면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며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전용구장 1만석 규모 건립

시의회 예산 10억원 증액 44억원 편성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1부리그 승격의 꿈을 키우고 있는 광주FC의 홈구장으로 쓸 축구 전용구장이 1부리그 관중석 규모로 건립된다. 광주FC의 최근 성적이 좋고, 미래에 1부리그에 승격하면 관중석 규모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증액·반영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날 상임위를 열고 축구 전용구장 조성 예산을 10억원 증액한 44억원으로 편성했다.

애초 광주시는 전용구장의 관람석을 2부리그 규모(5000석)로 조성하기로 하고 추경 예산안 34억원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광주시의회가 1부리그 규모의 관람석(1만석)을 조성하라며 예산을 늘렸다. 이에 광주시는 관람석 예산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전용구장 관람석을 1만석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FC는 현재 2부 리그에서 7라운드까지 4승 3무를 기록하며 승점 15점을 확보해 단독 1위다. 개막전부터 7경기 이상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 추세로 간다면 승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월드컵경기장 옆 보조경기장에 들어설 축구전용구장은 연면적 425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본부석과 1만석 규모의 관람석, 경기운영시설, 17실 규모의 숙소 등을 갖춘다. 사업비는 국비 36억원, 시비 118억원 등 총 154억원이다. 지난 1월 착공했으며 오는 12월 완공하고 내년부터 광주FC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광주FC는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립한 월드컵경기장을 그동안 홈구장으로 사용했지만 이곳은 육상 시설이 곁들여진 종합경기장 형태여서 광주시가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축구전용구장은 광주FC의 홈구장으로 쓰고, 월드컵 경기장은국제스포츠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 종합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